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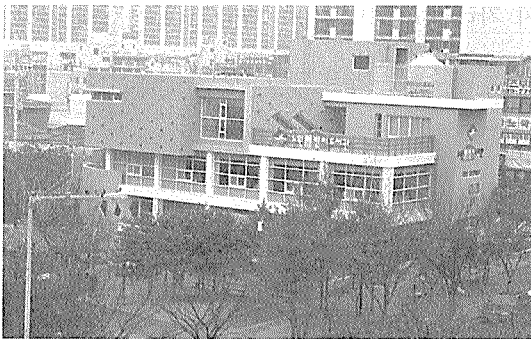


탐방 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 노원어린이도서관,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로 자라나기를...

심효정\*

멀리서 본 도서관의 첫 느낌이 그랬다. 노원구 중계동 샷샷봉 근린공원 공원 내에 위치한 3층 건물의 노원어린이도서관(<http://www.nowonlib.seoul.kr/DLSearch/TGUI/Theme/nowon/default.asp>)은 마치 숲 속에 위치한 아담하고 예쁜 성 같았다. 아이의 한 손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책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공원을 한바퀴 돌고 도서관에 첫 발을 내딛었다. 제일 먼저 내 시야를 가득 채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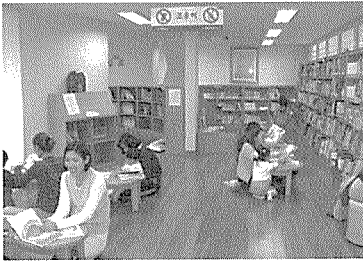


〈노원어린이도서관 전경〉

엘리베이터 옆의 아기자기한 그림들이었다.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의 모습이 한눈에 느껴졌다.

공원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다가 언제든지 발길을 내딛을 수 있는 그곳에 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 1층에는 전시실, 안내데스크, 유아열람실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1층 전시 공간에는 작품전시회 등이 열리고 있었다. 안내데스크에 앉아 계신 직원 두 명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유아열람실로 발길을 돌렸다. 유아열람실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유아열람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을 가득 채운 책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엄마의 책 읽는 소리에 스프르 잠든 아이들,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도서관 구석구석을 살피는 아이들 정말 그 조그

\* 한국도서관협회 직원, 도서관문화 편집자, swjgo@unitel.co.kr, shjcap@hitel.net



〈 유아실 모습 〉



〈 엄마와 책을 읽고 있는 아이 〉



〈 안내데스크의 사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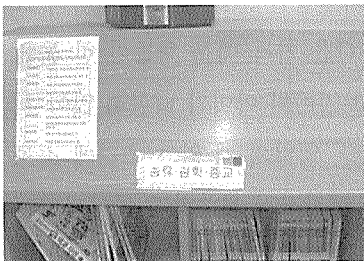
만 공간에 아이들은 마냥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도 넉넉하고 평온하며 행복한 모습이 도서관을 온통 감싸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눈부셨다. 황홀함을 잠시 뒤로하고 유아열람실 안을 차근차근 둘러보며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로 장식된 분류법이 서가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 아이들에게 조금은 높은 서가와 가구들... 도서관쟁이인 나의 관점에서는 이런 점들이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평소에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 그래서 자꾸만 오고 싶은 곳이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던터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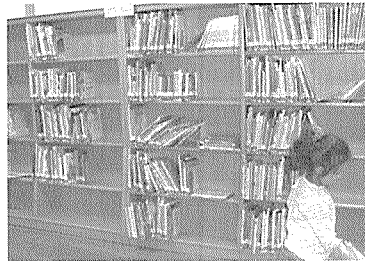
1층 유아실을 둘러보고 디지털자료실과 놀이방, 서고 등을 살피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협

소한 공간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갖춘 게 많았다. 제일먼저 안내데스크가 눈에 띄었다. 그곳에 사서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은 도서관에 익숙한 모양인지 자연스럽게 사서에게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문화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약간은 시끌시끌한 놀이방도 눈에 띄었다. 마냥 즐거워하는 아이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엄마와 아이, 어머니들끼리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한 듯 어머니들끼리 정겹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옆에 서고도 잠시 살펴보았는데, 최신설비로 잘 갖추어져 있기는 했지만 공간이 많이 협소해 보였다.

이번에는 다시 2층으로 향했다. 2층에 열람실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종합자료실 같은 곳이었다. 이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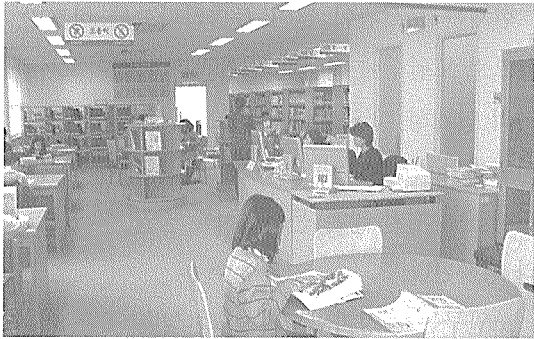
〈 총류, 철학, 종교로 분류된 유아실 서가 모습 〉



〈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아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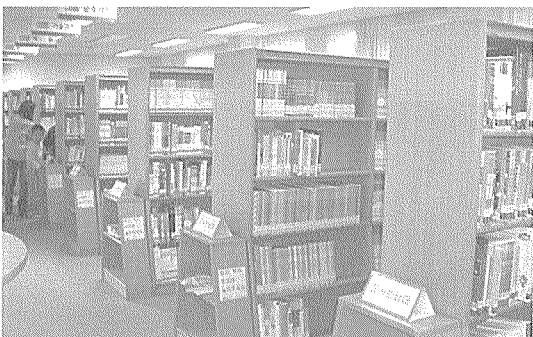
〈 디지털자료실 모습 〉



〈2층 열람실 내부〉

사서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한 손으로는 전화를 한 손으로는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생동감 있게 일하고 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넓적 넓적한 책상에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 서가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고르는 아이들, 친구들과끼리 옹기종기 모여 서로 읽는 책들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도서관의 중요성과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서가에 가지런히 놓인 책들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 순간은 맘속에 가득 담아 간직하고 싶었다.

2층을 나와 이번엔 다시 3층으로 향했다. 3층에는 강당, 강의실, 사무실, 하늘공원 등이 있다.



〈2층 열람실 서가 모습〉

나름대로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공간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아주 조그만 공간이긴 하지만 하늘공원도 맘을 탁 트이게 해주는 탐나는 공간이었다. 놀이동산에 가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나무의자와 가로등의 멋스런 조화... 갑자기 그 가로등 밑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책을 읽고 싶어졌다.

이제 도서관을 거의 다 둘러보았다. 편안한 내집 같은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런 도서관이 있는 동네에 산다면 행복할텐데' 라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물론 도서관의 사인판 설치의 미흡, 건축, 가구배치의 미흡, 서고공간의 부족, 어린이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분류, 평균 이용자 700-800명인데 비해 직원이 부족한 점 등 미흡한 점이 종종 눈에 띄기도 했지만, 신설도서관이기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 차차 노력해서 극복해나간다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노원어린이도서관 방문은 다시금 도서관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노원어린이도서관은 서울시 노원구청이 지방



〈지하 서고의 모습〉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유아와 초등학생만을 위해 설립하고,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다. 기존의 어린이도서관은 종로구 사직공원 내에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 한 곳 뿐이었기 때문에 노원어린이도서관 개관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원구에는 현재 약 65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등의 24개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노원구에는 서울점자도서관과, 서울특별시립중계평생학습관, 노원어린이도서관이 있다. 노원구 인근의 강북구에는 강북문화도서관, 강북청소년도서관, 도봉구에 도봉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립도봉도서관, 중랑구에 중랑구립정보도서관도 있다. 게다가 2003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 2005년 10월에 완공되는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원정보도서관이 상계동 운수근린공원 내에 지어진다.

현재는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지만, 앞으로 노원구에 신설될 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과의 연계성, 인근 지역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과의 연계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도서관이 제일 많은 문화도시를 꿈꿀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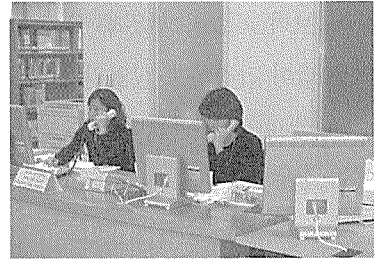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은 곳은 아니지만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유아 때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다양한 정보를 바르게 습득하도록 길잡이 역할과 지역주민의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원어린이도서관을 설립했고, 또 정보도서관을 신설하려는 중이다.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기까지도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렸을 것이다. 그 동안의 노력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점들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해나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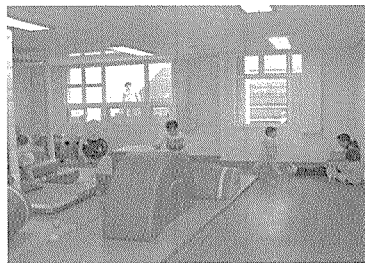
〈2층 열람실 입구〉



〈2층 열람실의 사서와 직원의 모습〉



〈3층 강당 모습〉



〈놀이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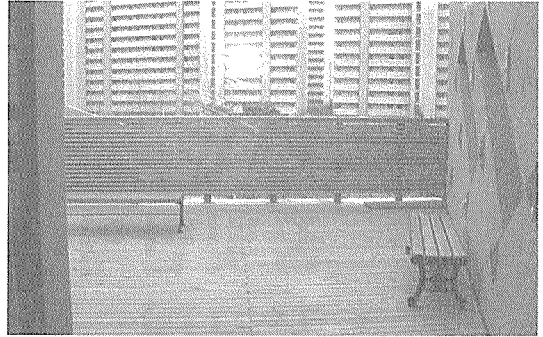


〈3층 문화교실 모습〉

인과 도서관에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 시민들의 참여확대 방안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 들어 참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사회적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함께 성숙되어져야 도서관이 제대로 된 문화시설의 하나로 발돋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시작단계지만, 아기자기한 도서관이 동네 곳곳에 생기는 그 날이 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노원어린이도서관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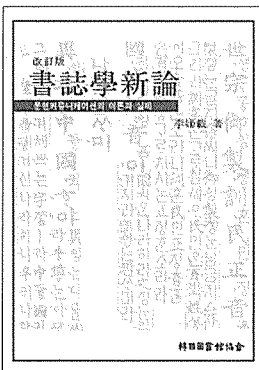
〈 하늘공원 모습 〉

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노원어린이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쉽지만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 주자’라는 말을 떠올리며 행복한 탐방기를 마친다.

개정판

改訂版 書誌學新論

李姬載 著



신국판/351쪽  
ISBN 89-7678-064-7  
정가 13,000원  
회원보급가 10,400원

목차

- 정의 및 개념
- 연구방법의 제이론
- 연구의 전개방향, 이론과 실제
- 이론 및 방법론
- 서지목록적 측면
- 형태물리적 측면
- 포괄적인 학적, 학제적 측면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